

“기초의원·단체장 정당공천 배제를”

법무부, 선거법 개정 건의

기초의원과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해 정당 공천을 배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정당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 받거나 지시·권유·요구·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되고 고가의 물품을 받는 경우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후보자 친척의 선거 범죄에 의한 당선 무효 범위가 확대된다. <관련기사 3면>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제4회 지방선거 사법 수사 및 공소유지 과정에서 드러난 공천 비리 사법 형사처벌의 허점 등 현행 공직선거법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의견을 마련해 1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한데 이어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국회에 상정된 선거관련법 개정안에 이런 방안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공천헌금 제공·수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정치자금법도 공천과 관련한 정치자금 수수 행위만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정치활동과 무관한 용도로 공천 헌금을 수수한 경우는 처벌이 불가능한 법적 허점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런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기초의원과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 공천을 배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정당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수수하거나 지시·권유·요구·

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등 공천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의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는 시민단체 등이 주장해왔다.

또 선거 브로커가 선거인 등에게 금품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있지만 선거 브로커에게 금

품을 주거나 이를 받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 처벌 규정이 없어 선거 브로커의 금전수수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켰다.

반면 음식물·물품 수수자에게 부과되는 ‘50배’ 과태료 규정은 ‘50배 이하’로 완화하고 고가의 물품을 받은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부도임대아파트 ‘반쪽 구제’ 우려

광주·전남 올 750억 필요...재원대책 없어 이중계약·대물세대 제외...구제기간도 길어

부도임대아파트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보전해주는 ‘부도임대주택 임차인보호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지난달 20일부터 시행됐지만 재원 확보가 제대로 안돼 반쪽짜리 제도로 전락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일 현재 광주·전남지역 부도임대아파트는 42개 사업장에 7천623세대에 달한다. 가족 수를 감안하면 2만3천명에 달하는 서민 세입자들이 건설사의 부도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셈이다. 전국의 부도임대아파트는 총 6만5천558세대로, 광주·전남은 11.6%를 차지하고 있다.

부도임대아파트 보증금 전액 보전을 골자로 한 특별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세입자들의 전원 구제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완전 구제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건설교통부는 올해 전국적으로 1만2천세대 정도의 부도임대아파트만을 우선적으로 매입하고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매입할 계획이다. 광주·전남의 경우 1천세대 가량의 아파트가 매입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전남만 보면 매입 대상의 8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이와 함께 연차별 매입 대상을 놓고도 세입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 상당수 세입자들은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절차나 시기는 물론, 실제 거주 여부 등을 놓고도 혼란에 빠져 있다.

엄청난 재원도 문제다. 부도임대아파트의 세대당 평균 집값을 5천만원 정도로 책정할 경우 광주·전남에서 금년만 750억원에 달하는 엄청난 재

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건설교통부는 매입 재원을 정부 재정 20%, 국민주택기금 등 기금 45%, 공공 10%, 세입자 25% 등으로 책정했다. 하지만 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65%에 달하는 데다 10%를 부담하는 공공도 해당 예산을 확보할 구체적인 대안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중계약세대나 대물(代物) 세대, 임대료 미납세대 등이 특별법의 구제 대상에서 빠진 것도 큰 문제점이다. 이로 인해 광주·전남 전체 부도아파트의 5% 가량은 특별법의 혜택을 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최정호기자 choice@kwangju.co.kr



이주여성에 치과 무료치료

포함해 전국 120여개 치과 병·의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두달에 한번씩 ‘효(孝) 진료일’을 지정, 무료 진료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조선대 치과의료공학인력사업단(단장 강동완)이 1일 출범시킨 ‘아름다운 실버봉사 네트워크’에 참여한 의료진이 전남지역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무료 치료를 하고 있다. 실버봉사 네트워크에는 광주·전남 40여개소를

/나명주기자 mjna@

김회장 자택 압수수색

경찰 “CCTV·GPS 분석 이동경로 파악”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은 1일 오후 2시15분부터 2시간 반 동안 종로구 가회동 김 회장 자택에서 압

수수색을 했다. 경찰이 횡령 등 경제사건이 아닌 폭력사건으로 재벌총수의 집을 압수수색한 것은 처음이다. <관련기사 3면>

이날 경찰은 사건 당일 김 회장의 행적을 파악할 수 있는 물증을 확보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김 회장의 집 차고에 설치된 CCTV자료를 압수해 사건 당일 범행시각 전에 김 회장이 탄 승용차가 집을 나서는 모습이 찍혀있는지 확인하고, 차량에 설치된 GPS(위성 추적장치) 정보를 분석해 당일 이동 경로를 파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하는 한편,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을 뒷받침해 줄 물증을 찾기 위해 범인명의 휴대전화와 수화비서 등의 사건 당일 휴대전화 위치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김 회장의 차남과 사건 현장 3곳에 줄곧 동행했던 친구 A씨가 수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신원을 파악 중이다.

경찰은 보강수사가 끝나는 대로 김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연철뉴스

알림

아프리카 어린이 돕기

앙드레 김 자선 의상바자

오늘·내일 - 김대중컨벤션센터

André Kim



세계적인 디자이너 앙드레 김 바자회가 광주에서 열립니다. UNICEF 한국위원회는 5월2일~3일 김대중컨벤션센터 로비에서 ‘UNICEF 아프리카 어린이 돕기 앙드레 김 자선 바자회 및 아프리카 사진전’을 개최합니다.

광주일보·대주건설이 후원하는 이번 바자회에서는 UNICEF 친선대사로 활동중인 앙드레 김의 사계절 의상을 저렴한 가격(10만원~20만원)에 할인 판매합니다.

가뭄과 기근, 온갖 질병으로 고통받는 아프리카 어린이를 돕기 위해 열리는 이번 바자회에 광주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일시 : 2007년 5월 2일(수) 13:00~18:00
5월 3일(목) 10:00~18:00
- 장소 : 김대중컨벤션센터 1층 로비
- 문의 : 062)220-0541, 02)738-8503

- 주 최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특별후원 : 광주일보 · 大洲建設 · 김대중컨벤션센터

유망학원 장학 57년 역사와 전통

광주의 새로운 명문종합대학교

남부대학교
http://www.nambu.ac.kr
▶ 상담전화 062-970-0114 ▶ T.062-970-0001~9

세계로 앞서는 대학

전남과학대학
http://www.chunnam-c.ac.kr
▶ 상담전화 1588-5051 ▶ T.061-360-5000

25세 이상 건성피부의 다양한 피부노화를 걱정한다 **76%**

피부 시간을 뛰어넘는 생명감

좋은 화장품을 가장 필요로 하는 당신을 위해
아이오페 슈퍼비탈 크림

시간이 흐르고 자-간 피부세포는 수분 보유력과 함께 생명력이 둔화되어, 다양한 노화로 나타내게 됩니다. 뛰어난 항산화 작용과 피부 신진대사를 돕는 것으로 널리 알려진 오메가3를 아이오페의 독점특허 NLC (Nano Lipid Carrier)로 담아낸 슈퍼비탈 크림. 피부에 부드럽게 덮으며 지켜주는 생명감이 피부결 하나하나, 깨끗한 아름다움으로 정돈해 드립니다.

IOPE
SUPER VITAL
HAIR MOIST CREAM
Contains Nano Lipid Carrier
PLANT EXTRACTS 43.7%
USPANTH DRUGTESTED